

평택시 안중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사례



글 | 송 은 희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ptsongeh@paran.com

지역 공공도서관에서의 다문화서비스 방향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문화사회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각 부처별로 다문화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부처별 지원 분야에 대한 경계가 명확치 않고 지원이 일시적인 사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서구사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분화된 서비스기관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문화서비스를 하고 있어 실제로 다문화 가족들이 원하는 분야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가도 의문이 든다.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몇 년간 평택시 안중도서관에서 '결혼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실' 과 '내국인을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해오던 동안 공공도서관에서의 다문화서비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가 늘 고민이었던 것 같다. 지면이든, 단상이든 다문화서비스 사례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있게 나서기 부끄러웠고 안중도서관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 다문화서비스는 사서나 개별 도서관의 노력만으로 뚜렷한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안산 다문화작은도서관이나 김해다문화도서관,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등의 다문화서비스 사례

가 보여주듯이 안중도서관도 지역적 환경 요인에 의해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사회가 이미 도래했다고 하지만 일시 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이주민 인구는 나라 인구의 2.6%에 불과하고 더욱이 '다문화'란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기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각의 기관이 제 역할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안중도서관은 다문화와 관련해 도서관의 역할 설정과 도서관만이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안중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사례

평택시 안중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외국인 결혼이주자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며 인근에 국가공단과 평택항이 있어 외국인 노동자 및 중국인의 체류가 많은 곳이다.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외국인 마을과 달리 한국문화를 가정에서부터 받아들여야만 하는 결혼 이주자의 경우는 우리 사회에 동화하려는 의지가 높으나 다수가 지역 사회의 중-하위 소득 계층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효과적인 다문화서비스를 위해선 먼저 자치단체 내에서 다문화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다문화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은 우리사회에 적응 노력을 하는 이주민에게 가장 먼저 안내되는 기관으로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생활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다문화센터가 하는 사업 영역과 중복하여 무리하게 독자적으로 운영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는 다문화센터와 협력하여 도서관의 대중적 접근성을 고려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안중도서관 다문화서비스도 협력기관의 문을 두드려 시작하였다.

내국인(어린이)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도서관은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해야 하며 자료는 도서관 서비스의 본질이다. 따라서 평택 내 2개관(본관, 안중분관)을 지정하여 2008년부터 다문화 자료를 확충하고 있으며 대출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확충에 더하여 사서들의 주요한 고민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다. 그런데 다문화 프로

그램에서 이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다문화서비스인 것은 아니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이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앞당기는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책을 자원으로 사서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우선 실시하였다.

〈표 1〉 내국인(어린이)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 상	강 사	운 영 방 식
다문화독서교실	초등 4-5학년	사서3명/다문화(베트남/중국) 강사2명/웃다리문화촌강사1명	독서지도 프로그램과 접목한 4일간의 다문화 관련 집중 독서 문화 체험 활동
움직이는 다문화스쿨	초등 1-3학년	외국인강사2명/다문화내국인 강사2명	인식개선 교육(내국인강사) 다문화체험활동(외국인강사)

내국인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은 다양한 방식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서들의 독서프로그램 노하우와 다문화 전문가들의 역량이 합쳐져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 움직이는 다문화스쿨



▲ 다문화 독서교실

이주민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평택 안중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결혼이주민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센터로의 접근도 불편한 편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자를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도 도

서관이 운영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이주민들이 참여하곤 했었다. 그러나 교육 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간극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이주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평택대학교 다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리 '결혼이주민을 위한 한글교실' 을 운영할 수 있었고 한글 강사의 전문적 자질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유대감 속에 프로그램 참여자는 갈수록 증가하여 초·중급 한글교실에 9개국 48명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과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도서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다.

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단지 공간을 통해서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낯선 타국에 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적응하려면 먼저 정착한 이주민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기에 다문화센터이든, 도서관이든 이들이 서로 만나는 연결고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서비스일 것이다. 이주민들이 남편과 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무척 어색해 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건강한 다문화란 이런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표 2〉 이주민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 상	강 사	운 영 방 식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실	결혼이민자 (초급/중급반 년중 운영)	한국어강사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평택대학교, 평택시 다문화 센터 협력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자녀 책 읽어주기	결혼이민자 자녀 (년중 운영)	프로그램 자원봉사단	한국어교실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 및 동화 책 읽어주기 활동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이용 교육	결혼이민자 대상 연 1~2회	사서/ 한국어강사	우리말 기초를 습득한 결혼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교육

* 기타 운영 중인 다문화서비스 : 다문화 추천도서 목록 제공, 다국어 인사말 현수막 등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개강식



▲ 이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이용교육

마무리하며

현재 도서관 다문화서비스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도서관 사서의 노력에 더하여 지역적 환경 요인과 다문화센터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다문화서비스의 방향을 도서관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 내 다문화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일시적·실적 중심이 아닌, 이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안중도서관의 한글교육 참여자 중 일부가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도서관의 책들을 일상에서 이용하게 되었듯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목적은 그들이 도서관과 책을 생활 속에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체험한 이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자녀들과 함께 도서관을 활용하게 되고 독서를 통해 성장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도서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